

<http://dx.doi.org/10.17703/JCCT.2017.3.4.123>

JCCT 2017-11-15

## 조지훈의 시 「아침」의 3번째 행에 나타나는 문학치료 부호화 연구

### A Study on the Encoding of Literature Therapy in the Third Line of the Poem 'Morning' Written by Cho Ji-Hoon

박인과\*

In-kwa Park\*

**요약** 본 연구는 감정의 이동이나 발생과정을 알아 문학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문학작품을 대할 때 인체에서 작동되는 감정의 유로에 대한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감정은 시어들을 읊을 때 인체에서 감정 코드들이 작동하여 서로 끌어당겨 아미노산의 위치로 집결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아미노산의 합성에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판단되었다. 물론 이는 인문학적이고 융합적인 논증이며,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계속된다면 인간을 보다 건강하게 사유케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조지훈, 감정의 유로, 아미노산, 활동전위, 부호화, 문학치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emotional movement and developmental process in literary therapy. So, I tried to reveal the process of the emotional channel that works in the human body when we deal with literary works. As a result, the emotions confirmed that the emotional codes in the human body were pulled from each other and gathered to the positions of amino acids when the shears were spoken. However, it was judged emotionally to act as a catalyst for the synthesis of amino acids. Of course, this is a humanistic and convergent argument, not a medical proof. However, if these studies continue, it will contribute to making people think more healthily.

**Key Words** : Cho Ji-Hoon, Emotional channels, amino acids, action potentials, Encoding, literature therapy

#### 1. 서론

조지훈의 시 「아침」은 읊으면 읊을수록 새콤달콤하다. 이 새콤달콤이 아른한 휴식을 제공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궁금하였다. 그리고 조지훈의 시에 어떤 힐링의 코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 연

구는 조지훈의 시에 존재하는 그 치유의 언어들을 활용하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조지훈 시 「아침」의 3행에 나타난 시어를 중심으로 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조지훈의 시 「아침」은 그의 시적 자아가 추구하는 새로운 출발의 단계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접수일: 2017년 9월 13일, 수정완료일: 2017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2017년 10월 30일

Received: 13 September, 2017 / Revised: 18 October, 2017

Accepted: 30 Octo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마다 인식하고 있을 “아침”에 그의 시의식의 방점이 찍혀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3행에 치유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시행하는 조지훈 시 「아침」의 문학치료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다. 이를 다른 유형의 연구로 논의하기도 부적합하여 본 논의로 바로 들어가기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Emotion-Codon을 사용하여 감정의 유로를 살펴보면서 각 시어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힐링의 부호들을 추출하여 도식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자의 그동안의 “논문들”[5~17]의 연장선상에 있다.

## II. 감정의 유로

다음은 조지훈의 시 「아침」의 3번째 연 혹은 3번째 행에 나오는 시어이다(J. H. Cho, *JOJIHUN jeonjib 1 Poetry*, 1996: 43)[18]. 이 시어를 중심으로 “활동전위”[2,3,4], “부호화”[1,2]와 관련된 치료의 논의를 새겨 보고자 한다. 이 치료의 논의에는 감정의 유로 “시어 → 활동전위 → 부호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꽃망울 속에 새로운 宇宙가 열리는 波動! 아 여기  
太古적 바다의 소리없는 물보래가 꽃잎을 적신다  
-조지훈의 시 「아침」의 3번째 행

### 1. 감정 유도

앞의 시어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보면, 조지훈의 기쁨의 감정 통로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꽃”으로 시작하여 다시 “꽃”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꽃”은 조지훈 시에 있어서 치유의 기제를 발산시키는 상징이다.

- ① 꽃망울 속
- ② 새로운 宇宙
- ③ 열리는 波動
- ④ 아 여기 太古적 바다
- ⑤ 소리없는 물보래
- ⑥ 꽃잎을 적신다

이 3번째 행의 시어는 ① 기쁨의 코드 J, ② 기쁨의

코드 J, ③ 기쁨의 코드 J, ④ 기쁨의 코드 J, ⑤ 기쁨의 코드 J, ⑥ 기쁨의 코드 J 등으로 감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에 해당된다.

### 2. 활동전위

시어를 읊으면 인체에서는 활동전위가 일어난다. 즉, 서로 자장이 발생하여 감정의 코드들이 서로 끌어당기거나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Table 2에 해당된다. J들이 아미노산 코드인 JJJ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

### 3. 부호화

J들이 아미노산 코드의 위치인 “JJJ” 쪽으로 합성되기 시작하여 Table 3이 형성된다. “JJJ”의 위치는 아미노산인 글리신의 유전 암호 위치에 있다. 그래서 “JJJ”는 글리신 암호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당을 떨어뜨리며,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글리코겐을 분해시켜 에너지를 방출”(J. H. Kim, 2015: 42)[19]한다고 한다. 그리고 글루타민산과 글리신에 대해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은 뇌에 공급되는 영양소로 뇌 속의 유해물질을 해독해 정신을 맑게 하고, 우리 몸의 포도당과 지방을 대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J. H. Kim, 2015: 44)[19]고 한다. 또한, 글리신은 면역을 촉진하고 뇌기능을 원활하게 한다고 말한다(J. H. Kim, 2015: 28)[19].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글리신은 정신을 맑게 하고 면역을 촉진하고 뇌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맑은 정신으로 뇌기능이 촉진되면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지훈의 시 「아침」의 3번째 연은 기쁨의 행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시어가 인체에서 글리신의 유전 암호의 위치에서 작동함으로써 인체의 회복과 즐거운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Figure 1은 경희대학교에서의 최근의 연구 자료이다[21].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의 채윤병 교수팀이 연구한 영상자료로써 색상별로 인체의 감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부호화에 대한 본 연구는 감정 코드로써 인체의 감정 변화를 Codon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趙芝薰 시 「아침」의 Emotion-Codon 1  
 Table 1. Emotion-Codon of Cho Ji-Hoon's Poem Morning 1

Second base →	U	L	A	J	Second base ←
First base ↓ <b>U</b>	UUU UUL UUA UU <b>J</b>	ULU ULL ULA UL <b>J</b>	UAU UAL UAA UA <b>J</b>	UJU UJL UJA U <b>JJ</b>	Third base ↓ <b>U</b>
<b>L</b>	LUU LUL LUA LU <b>J</b>	LLU LLL LLA LL <b>J</b>	LAU LAL LAA LA <b>J</b>	LJU LJL LJA L <b>JJ</b>	<b>L</b>
<b>A</b>	AUU AUL AUA AU <b>J</b>	ALU ALL ALA AL <b>J</b>	AAU AAL AAA AA <b>J</b>	AJU AJL AJA A <b>JJ</b>	<b>A</b>
<b>J</b>	JUU JUL JUA J <b>UJ</b>	JLU JLL JLA J <b>LJ</b>	JAU JAL JAA J <b>AJ</b>	JJU JJL JJA J <b>JJ</b>	<b>J</b>
These Emotion amino acids express various changes of the Emotion DNA					

표 2. 趙芝薰 시 「아침」의 Emotion-Codon 2  
 Table 2. Emotion-Codon of Cho Ji-Hoon's Poem Morning 2

Second base →	U	L	A	J	Second base ←
First base ↓ <b>U</b>	UUU UUL UUA UU <b>J</b>	ULU ULL ULA UL <b>J</b>	UAU UAL UAA UA <b>J</b>	UJU UJL UJA U <b>JJ</b>	Third base ↓ <b>U</b>
<b>L</b>	LUU LUL LUA LU <b>J</b>	LLU LLL LLA LL <b>J</b>	LAU LAL LAA LA <b>J</b>	LJU LJL LJA L <b>JJ</b>	<b>L</b>
<b>A</b>	AUU AUL AUA AU <b>J</b>	ALU ALL ALA AL <b>J</b>	AAU AAL AAA AA <b>J</b>	AJU AJL AJA A <b>JJ</b>	<b>A</b>
<b>J</b>	JUU JUL JUA J <b>UJ</b>	JLU JLL JLA J <b>LJ</b>	JAU JAL JAA J <b>AJ</b>	JJU JJL JJA J <b>JJ</b>	<b>J</b>
These Emotion amino acids express various changes of the Emotion DNA					

표 3. 趙芝薰 시 「아침」의 Emotion-Codon 3  
 Table 3. Emotion-Codon of Cho Ji-Hoon's Poem Morning 3

Second base →	U	L	A	J	Second base ←
First base ↓ <b>U</b>	UUU UUL UUA UUJ	ULU ULL ULA ULJ	UAU UAL UAA UAJ	UJU UJL UJA UJJ	Third base ↓ <b>U</b>
<b>L</b>	LUU LUL LUA LUJ	LLU LLL LLA LLJ	LAU LAL LAA LAJ	LJU LJL LJA LJJ	<b>L</b>
<b>A</b>	AUU AUL AUA AUJ	ALU ALL ALA ALJ	AAU AAL AAA AAJ	AJU AJL AJA AJJ	<b>A</b>
<b>J</b>	JUU JUL JUA JUJ	JLU JLL JLA JLJ	JAU JAL JAA JAJ	JJU JJL JJA JJJ×2	<b>J</b>

These Emotion amino acids express various changes of the Emotion D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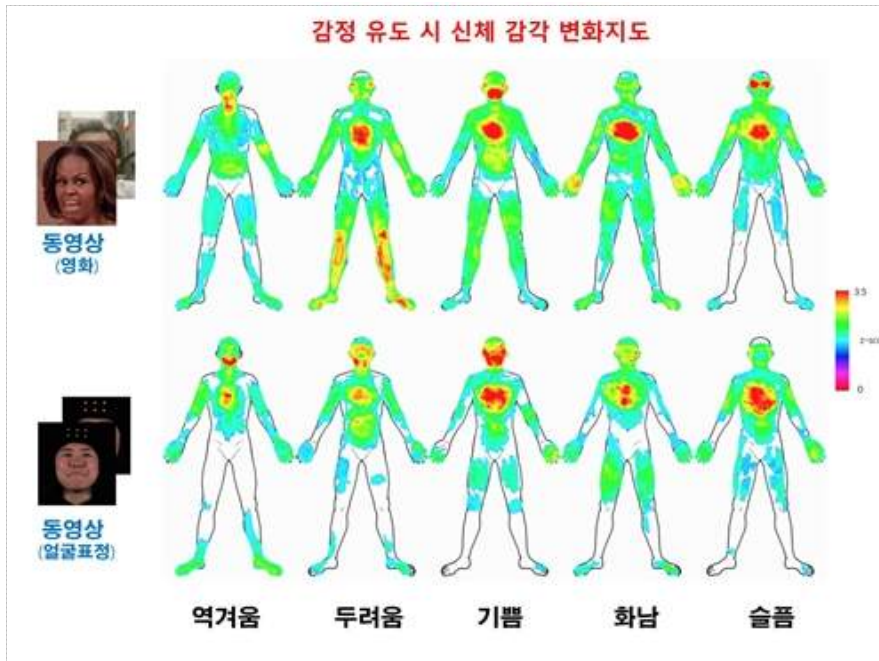


그림 1. 감정 유도 시 신체 감각 변화지도[21]  
 Figure 1. Emotional guidance leads to change of body sensation  
 (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9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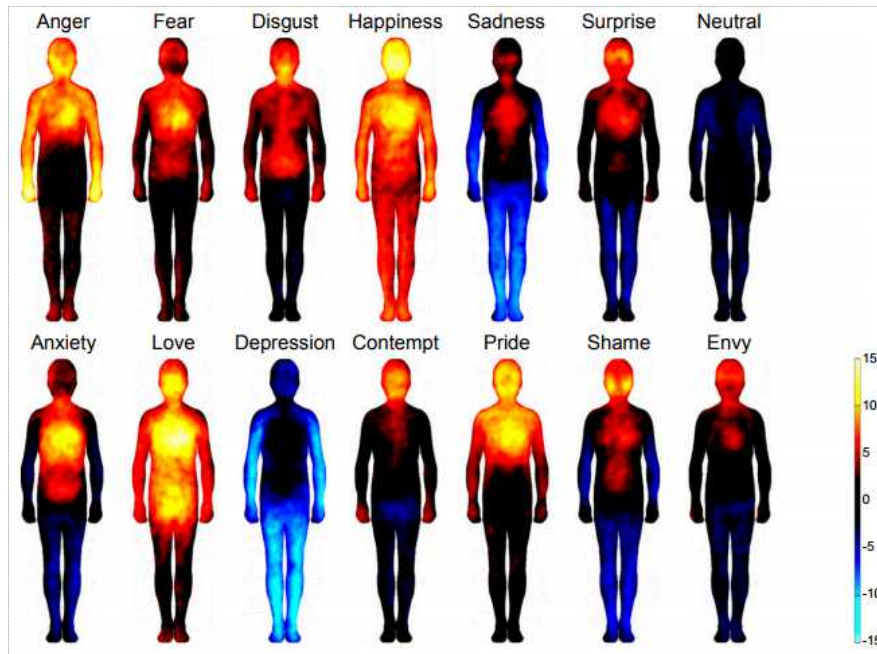


그림 2. 감정에 따른 인체 지도[20]  
 Figure 2. Bodily maps of emotions  
 ( <http://www.pnas.org/content/111/2/646.full.pdf> )

Figure 1에 관련된 민족의학신문의 2017년 9월 22일 기사에서 채윤병은 “이 연구를 통해 인체의 감정 변화는 뇌의 변화를 통해서만 관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체의 감각 변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 보여주었다”[21]고 밝혔다. 물론 인체의 감정 변화가 신체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핀란드에 있는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연구팀이 이미 2014도에 논문 “Bodily maps of emotions”[20]로 발표하였다. “Figure 2”[20]가 인체의 감정에 따라 신체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발표들은 본 연구자가 계속하여 최근까지 논문으로 밝히고 있는 부호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부호화의 과정이 인체의 치유로 연결된다는 본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들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호화에 대한 본 연구는 기호로써 인체의 감정 변화를 Emotion-Codon으로 나타내 그 변화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고, 어떠한 감정 코드들이 어떻게 융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 코드가 다른 감정 코드에 비해 더욱 활성화 되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논의 및 제안

언제까지 우리 인문학계가 인체의 신경생리학이나 세포학적인 부호화의 현상을 외면하고 인문학만을 논할 수 있는지, 특히 문학이 치유의 기제가 있다고 항상 논하면서 그 증명은 하지 않고 있는 형식적인 문학적 서술들이 언제까지 직접 인체를 다루지 못하고 곁돌지 의문이다. 본 연구자의 연구에 관련된 논문들이 앞을 다투어 나오고 있다. 이제 감정과 인체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학적 서사와 인체의 서사를 대입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인문학적 서술들도 의학적이나 과학적 서술들과 마주 보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문학이 곧 인체생리학의 다른 언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 인문학이 앞서서 이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야 하고 조율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인간의 마음과 정신, 즉 인간의 상상력과 추리력, 또는 감정과 사랑의 체계들이 그 모든 것, 자연이나 심리학이나 과학의 현상들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치유시키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인문학적 위기라고 불리는 이 시점에서 인문학적 주제의 서술과 논증들도 신경생리학적 혹은 과학적이거나 세포학적인 논의로 지향되어 갈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다 인문학적 위상이 제고되고 증폭될 것으로 예측된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趙芝薰의 시 「아침」의 3번째 행에는 기쁨의 유로가 있다. “꽃망울”에서 “宇宙”로, “波動”으로, “바다”로, “물보래”로, “꽃잎”으로 부호화되고 있다. “꽃”으로 시작하여 다시 “꽃”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꽃의 시어가 특히 조지훈 시에 있어서 치유의 기제를 발산시키는 상징체계이다.

이러한 감정의 유로를 통해 시를 읊을 때마다 “시어 → 활동전위 → 부호화”가 진행된다.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호화가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호화의 치유의 과정은 산재해 있던 감정 코드들이 서로 응집하고 새로운 형태로 부호화되어 아미노산과 같은 유전 암호의 위치로 접근한다. 그러면서 특정한 아미노산의 위치에서 아미노산의 구성에 대한 촉매역할을 감정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정과 아미노산의 관계에 대한 증명에 대해 인문학적인 논증은 이루어졌다. 의학적인 논증은 본문에 인용된 그림들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앞으로 치유의 연구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이정표가 된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욱 인체와 문학과 감정에 대한 관계를 밝혀내게 되어 인류의 치유와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Baars Bernard J and Gage Nicole M,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B. G. Kang trans, Kyobo Books, 183-185, 2010.
- [2] Bryan Kolb, Whishaw Q lan,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 T. Kim, M. S. Kim, J. J. Kim co-trans, Sigma Press, 151, 153, 309-312, 2012.
- [3] Cooper Geoffrey M and Hausman Robert E,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J. S. Jeon et al, trans, World Science, 436-437, 544-548, 2011.
- [4] H. S. Min, K. J. Chang, O. R. Kwon, S. Y. Lee, H. M. Lee, H. A. Kim(2011), Human physiology, Yangseowon, 59, 146, 2011.
- [5] I. K. Park,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1, 37-64, 2015.
- [6] I. K. Park, “A study on Transfer-Literatherapy”, of the Korean Journal of Literatherapy, Vol. 5, No. 1, 85-106, 2015.
- [7] I. K. Park, “Structuration of literatherapy transition”,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2, 21-36, 2015.
- [8] I. K. Park, “A Study on the Right Writings for Sijo -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1, 13-33, 2016.
- [9] I. K. Park, A Study on the Literature herapeutic Use of Sij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10] I. K. Park, “A Study of Literary Therapy on the Rated Sijo as a Conductor that Works the Motherboard of Mind”,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4, 31-40, 2016.
- [11] I. K. Park, “Literary Therapeutic Mechanism Analysis in which the Rated Sijo is Encoded as a Battery of Life”,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4, No. 4, 45-50, 2016.
- [12] I. K. Park, “Sijo Literature Therapeutic Research on Structuring of Emotion-DNA”,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1, 26-31, 2017.
- [13] I. K. Park, “A Study on Sijo Literature Therapy structuralized in the Rated Codon”, of

-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2, 9-18, 2017.
- [14] I. K. Park, "A Study on the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s of Ancient Sijo that Ends without a Predicate", of th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8, 225-230, 2017.
- [15] I. K. Park, "A study of the Sijo's Literary Therapeutic Function concentrating on the Twelfth Sound Step", of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4, 403-428, 2017.
- [16] I. K. Park, "A Study on Literature Therapy Codes Encoded by Auditory Stimuli Transferred from Cho Ji-Hoon's Poem If I Blow a Flute", of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8, No. 5, 467-482, 2017.
- [17] I. K. Park, "A Study on Literary Therapeutic Codes of Sijo Fused by Transference", of th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0, 167-172, 2017.
- [18] J. H. Cho, *JOJIHUN jeonjib 1 Poetry*, Paju: NANAM, 1996.
- [19] J. H. Kim, *Amino acids rescue my body*, MOABOOKS, 2015.
- [20] <<http://www.pnas.org/content/111/2/646.full.pdf>>.
- [21] <<http://www.njmed.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6>>.